

# 멤버십 상속으로 로타리 가문의 전통을 세웁시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이순동



존경하는 3650지구 로타리안과 가족 여러분,  
 지난 9월 23일에는 제14차 한일친선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특별히, 전국 19개 지구 가운데 우리 지구가 160명이 넘는 최다등록으로 가장 많이 참석했습니다. 협조해주신 클럽 회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신 채희병 전RI이사님, 문덕환 전총재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의 핵심 운영 방침인 'Family Together'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회원 영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회원순증 25%, 지구 회원 2,500명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회원 수를 늘리는 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Family Together'를 계기로 차세대 젊은 회원들을 영입함으로써 로타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 지구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Family Together'에 공감하시는 회원들께서 가족회원 영입을 실천해주셨습니다. 새서울로타리클럽 김유광 전회장의 두 따님과(김정아, 김정연) 사위가(이형용) 입회하였고, 서울삼청로타리클럽 최인훈 회장과 이우식 직전회장 부인께서 나란히 입회해 부부회원이 되셨습니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에서는 부인회 15명을 주축으로 '무악 울타리 위성클럽'을 발족함으로써 가족회원의 새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클럽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각자 자신의 클럽에 적합한 'Family Together' 실천방안을 세워 '新 로타리 시대'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수 프로그램이라 잘 아시겠지만, 직업의 귀천을 떠나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최고 수준에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달인이 많은 나라는 일본과 독일입니다. 200년 넘는 장수기업이 전 세계에 5,586개 업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이 3,113개, 독일이 1,563개, 프랑스에 331개 업체가 있을 정도로 달인이 많고, 또 대를 이어가는 장수기업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년 기업은 없고, 100년 이상 된 기업이 8개에 불과합니다. 달인이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과 능력을 쌓은 사람, 오로지 한길을 걷고 대를 이어 그 기술과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로타리에는 달인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로타리의 달인이란 로타리

“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나라에 국격이 있듯이 로타리 가문이라는 명예를 후대 세대에게 물려주는 문화를 만드는 데 우리 3650지구가 선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



멤버십을 대물림을 하는 분이다, 즉 멤버십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여 로타리 정신을 이어가는 분이 바로 로타리의 달인이고, 이것이 로타리 가치의 정점(頂點)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타리안으로서 10년, 20년, 30년이 넘도록 쌓아온 보람과 명예를 자손들에게 계승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물질적 상속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상속입니다.  
 그래서 회원 자녀들을 로타리클럽이나 위성클럽, 신세대클럽에 가입시켜서 대를 잇는 로타리 가족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Family Together' 정신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나라에 국격이 있듯이 로타리 가문이라는 명예를 후대 세대에게 물려주는 문화를 만드는 데 우리 3650지구가 선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10월 21일(토)에는 3650지구에서 주관하는 제1회 불문투어가 열립니다. 이제는 봉사도 생활 속의 봉사로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봉사-Volunteer와 여행-Tour'를 결합한 불문투어 봉사활동을 계속 기획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10월 24일은 세계 소아마비의 날입니다. 소아마비 박멸을 위한 폴리오플러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PHF 기부는 로타리안의 기본 의무이자 숭고한 봉사정신의 출발입니다.  
 우리 지구는 지난 연도에 이동건 전RI 회장께서 62만 달러의 인다우트먼트 기금을 회사해주셔서 기부실적이 19개 지구 중 9위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Best 10 내에는 들어야겠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Best 5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로타리가 태동한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1월 17일에 한국 로타리 90주년을 축하하고, 소아마비 박멸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 골프대회를 경기도 포천, 푸른솔골프클럽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의 뜻을 더하기 위해 서울 남부의 3640지구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 로타리 90년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Pride of RI3650'을 여는 열쇠도 바로 우리들의 손에 있습니다. 3650지구 모든 로타리안 여러분들께서 '내가 바로 한국 로타리의 대표선수'라는 사명감으로 앞장서주시고 더 많은 회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신다면 재단기부 Best 5, 'Pride of RI3650'은 반드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폴리오플러스는 우리 로타리가 인류사회에 크게 기여한 성공적인 프로젝트입니다. 1985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32년간 전세계 25억 명의 어린이들이 백신을 접종했고, 현재 지구촌에는 오직 3개 국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에서만 약 35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구에서는 이번 연도에 3만 5천 달러를 기부해 소아마비 박멸 최종 엔드게임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10월은 유래 없이 긴 추석연휴가 있었고, 내년 2월 9일이면 평창올림픽이 개막합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올 연말까지 2달 반쯤 남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지금이 곧 마(魔)의 35킬로미터 구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과 목표의 8, 9부 능선을 넘는다 는 각오로 뛰어야겠습니다.  
 저부터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힘내서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